

『鍼灸擇日編集』과 『醫方類聚』의 관계 연구

오준호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ilation of Chimgutaekil*” and “*Uibangryuchi*”

Jun-Ho Oh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ion of Oriental Medicine

Abstract

Objectives : This research is aimed to consider the arranging process of the expertise on acupuncture & moxibustion in the corrective process of “*Uibangryuchi*” by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ibangryuchi*” and “*Compilation of Chimgutaekil*”.

Methods : This researcher scrutinized the compilation & corrective process of “*Uibangryuchi*” through royal family records and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ilation of Chimgutaekil*” and “*Uibangryuchi*” from the historial viewpoint.

Results and Conclusions :

1. In the corrective process of “*Uibangryuchi*”, the specialized knowledge of acupuncture & moxibustion were erased.
2. The contents related to “*Chimgutaekil*” among the erased contents are included in “*Compilation of Chimgutaekil*”.
3. The method of arranging the knowledge in “*Compilation of Chimgutaekil*” coincides with that of “*Uibangryuchi*”, which showes this book has a deep association with “*Uibangryuchi*” in the aspect of the period, organization of authors, and arrangement form.
4. The “*Chimgutaekil*”(Pick-a-date Method) is of no big consequence in the science of acupuncture & moxibustion but considers the example of medical procedures in the royal family of the Chosun Dynasty : the “*Chimgutaekil*” was the operation to be done at the very first beginning in time of the medical procedures using acupuncture & moxibustion.
5. Through such historical facts, the conclusion was made that the reason why specialized knowledge of acupuncture & moxibustion of specialty book was deleted in the compilatory process of “*Uibangryuchi*” is that its writing staff decided to compile these separately, thereby hurriedly publishing “*Compilation of Chimgutaekil*” as an example.

Key words : *Uibangryuchi*, *Compilation of Chimgutaekil*, Chosun, Korean Medicine, Acupuncture & Moxibustion, History of Medicine

I. 서 론

· 교신저자 : 오준호,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번지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Tel. 042-868-9317, E-mail: junho@kiom.re.kr
· 투고 : 2011/02/12 심사 : 2011/03/16 채택 : 2011/03/23

『醫方類聚』는 세종 27년(1445) 1차 완성된 후

성종 8년(1477) 간행된 현존하는 최대 분량의 동아시아 전통의학 전적이다. 1차 완성 당시 365권이었으나 30여년간의 교정과정을 거쳐 266권으로 최종 간행되었다. 이 책에는 모두 142종 가량의 의서와 의학관련서가 인용되었으며¹³⁾ 당, 송, 원, 명대 초기의 중국의학과 고려, 조선 초기까지의 고유의학이 담겨있다¹⁵⁾. 『醫方類聚』는 전체 91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문은 醫論, 方藥, 食治, 禁忌, 鍼灸, 導引 등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¹⁶⁾.

의방유취는 한국 의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의방유취의 편찬과 함께 진행된 醫書習讀 및 類抄작업은 서로 상승작용을 만들어 내어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계층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은 時用 의서의 간행을 통해 다시 확대 재생산¹⁷⁾ 될 수 있었다¹⁷⁾. 또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서는 중국의 일실 문헌을 대거 수록하여 의학 지식의 타임캡슐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중간되고, 다시 현대 중국에서 신활자본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한중일 삼국 간에 의학지식을 전파하고 공유하는데 전대미문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여러 편의 선행연구^{3~8,13,14)}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醫方類聚』에 침구학에 관한 내용들이 소략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醫方類聚』 「引用諸書」에 다수의 침구전문서적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 『醫方類聚』가 醫論, 方藥, 食治, 禁忌, 鍼灸, 導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는 상호 모순적인 면이 있다. 다시 말해 『醫方類聚』에는 침구전문서를 인용서적으로 삼고, 편체상으로 침구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염두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존 『醫方類聚』에는 침구전문서를 출전

으로 한 내용이 없다⁹⁾. 이에 필자는 『醫方類聚』와 『鍼灸擇日編集』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醫方類聚』 교정 과정에서 침구전문지식들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당시에 『鍼灸擇日編集』을 필두로 침구 지식을 분문유취하려는 계획이 존재 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및 고찰

1. 『醫方類聚』의 교정과 침구 전문 지식의 삭제

1) 『醫方類聚』의 교정 과정과 醫官 全循義

『醫方類聚』와 『鍼灸擇日編集』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醫方類聚』의 편찬과 교정 과정을 간략해 개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실록기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醫方類聚』는 그 분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완성된 서적이다. 『醫方類聚』 편찬 단계는 시기상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1단계는 세종대 『醫方類聚』 초고본의 완성이다. 그 정황은 세종 27년 실록 기사(10월 27일)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집현전 부교리 김예몽, 저작랑 유성원, 시직 민보화 등에게 명하여 여러 방서를 수집해서 分門類聚하여 합해 한 책을 만들게 하고, 뒤에 또 집현전 직제학 김문과 신석조, 부교리 이예, 승문원 교리 김수온에게 명하여 의관 전순의, 최윤, 김유지 등을 모아서 편집하게 하고, 안평 대군 이용, 도승지 이시철, 우부승지 이사순, 첨지중추원사 노중례로 하여금 감수하게 하여 3년을 거쳐 완성하였으니, 무릇 365권이었다. 이름을 『醫方類聚』라고 하사하였다¹⁸⁾.

① 『醫方類聚』 凡例 “一. 諸門內論及藥畢書後, 繼書食治禁忌導引”²⁰⁾

② 『中宗實錄』 중종 20년(1525) 1월 18일 “우연히 『의방류취(醫方類聚)』를 보니, 염병 물리치는 방법 외에 염병을 고치는 방법도 많았다. 초록(抄錄)하여 평안도에 내려보내어 이 방법을 알고 써 보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박아내어 중외(中外)에 반포하게 하라.” (傳曰: “偶覽『醫方類聚』, 辟廬方外, 治疫之方亦多. 其抄錄下送于平安道, 俾知此法, 而試用何如? 且令印出, 頒諸中外”)¹⁸⁾

③ 『世宗實錄』 27년 10월 27일 “命集賢殿副校理金禮蒙、著作郎柳誠源、司直閔普和等, 袁集諸方, 分門類聚, 合爲一書. 後又命集賢

위의 기사를 통해 『醫方類聚』 초고본 편찬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醫方類聚』는 3년여의 작업 끝에 세종 27년(1445) 365권으로 초고본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醫方類聚』는 세종 24년(1442) 처음 착수되었다. 둘째, 『醫方類聚』 초고본 편찬은 크게 ① 방서 수집과 분류과정, ② 수집 의서 내용의 재편집과정, ③ 결과에 대한 감수과정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셋째, ① 방서 수집과 분류과정에는 김예몽, 유성원, 민보화 등이 활약하였고 ② 수집 의서 내용의 재편집과정에는 김문, 신석조, 이예, 김수온 등이 전순의, 최윤, 김유지 등을 모아 이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안평 대군, 이사철, 이사순, 노중례가 ③ 결과에 대한 감수과정을 진행하였다.

방서를 수집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分門類聚”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는 『醫方類聚』라는 서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단어이다. 分門類聚는 의학 정보를 정리한 『醫方類聚』만의 독특한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大門, 引用書, 引用篇, 諸論의 4대 분류⁷⁾와 醫論, 方藥, 食治, 禁忌, 鍼灸, 導引의 체제, 그리고 인용제서의 순차적 나열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⁸⁾.

『醫方類聚』는 이 뒤에도 오랜 교정을 거치게 된다. 이 시기가 2단계 세종조 校正 과정이다. 당시의 교정은 通儒와 醫官(혹은 의서습독관) 1인을 한 조로하여 서로 감독하고 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세조 5년(1459) 9월 4일 실록기사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좌승지 이극감이 『治平要覽』을 교정하는 일에 관해

殿直提學金汶·辛碩祖·副校理李芮·承文院校理金守溫, 聚醫官全循義·崔閔·金有智等編集之, 令安平大君濬·都承旨李思哲·右副承旨李師純·僉知中樞院事盧仲禮監之, 歷三歲而成, 凡三百六十五卷, 賦名曰『醫方類聚』。¹⁵⁾

④ 『世祖實錄』5년(1459) 9월 4일 “左承旨李克堪上書曰: 『醫方類聚』亦醫書之大全, 切於日要, 固非『治平』之所及也. 然以斤兩之多少、藥性之寒溫, 若少有錯誤, 則害人甚大, 其校正之功, 當倍著力, 不可容易. 然其校正, 不必儒士. 臣觀醫書習讀諸人, 皆通曉文理, 熟知方書, 可令此輩校正, 乞選通儒知醫方者一人監領如近日『兵要』校正之例, 互相檢察, 施其賞罰, 則不必別立書局、別廩飲啖, 而功亦易就. (後略)¹⁶⁾

⑤ 『世祖實錄』5년(1459) 11월 30일 “양성지에게 『醫方類聚』를 교정하게 하다.”(命行大護軍梁誠之校正『醫方類聚』)¹⁶⁾

⑥ 『世祖實錄』10년(1464) 1월 11일 “吏曹에 전지하여 孫昭 등 10인을 罷職시키고, 柳璫 등 7인을 파직시킴과 동시에 前仕를削除하고, 韓致良 등 46인의 전사를 삭제하고, 安克祥 등 11인은 告身을 빼앗았는데, 『醫方類聚』를 校正함에 있어서 많은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傳于吏曹: “孫昭等十人罷職, 柳璫等七人罷職, 仍削前仕, 韓致良等四十六人削前仕, 安克祥等十一人奪告身. 以校正『醫方類聚』, 多致錯誤故也)¹⁶⁾

아뢰다. 『醫方類聚』도 또한 의서의 大全이므로 일용에 緊切한 것은 진실로 『치평요람』에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斤兩의 多少와 藥性의 寒溫에 있어서 만약 조금이라도 틀린 점이 있게 된다면 사람을 해침이 매우 클 것이니, 그것을 校正하는 일은 마땅히 갑절이나 힘을 써야만 하고 쉽사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정을 儒士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臣이 보건대, 醫書를 習讀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두 文理를 通達하여 方書를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 이런 무리들로 하여금 校正하도록 하고, 원컨대 通儒로서 醫方을 아는 사람 1명을 뽑아서 근일에 『兵要』를 校正하는例와 같이 감독하고 거느리게 하여 서로가 檢察하도록 해서 賞罰을 준다면 반드시 별도로 書局을 세우고 별도로 廉祿를 주어 막도록 하지 않더라도 일은 쉽사리 성취될 것입니다.(후략)⁹⁾

李克堪의 청을 들은 世祖는 梁誠之에게 『醫方類聚』를 교정하게 한다¹⁰⁾. 이후 『醫方類聚』 교정에 차오가 있어 한치량, 이주상 등을 치죄하였다는 기사¹¹⁾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醫方類聚』 교정 작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단계는 교정을 끝내고 266권 264책으로 30질의 『醫方類聚』가 간행되는 시기이다. 성종 8년(1477) 5월 20일 실록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西平君 韓繼禧, 左參贊 任元濬, 行 護軍 權攢이 『醫方類聚』 30株을 印行하여 올리고 아뢰기를, “이 책을 찍어내는 데 3년이 걸려서 공정이 끝났는데, 監印官 柳渭는 오래 의관으로 滯留되었고, 白受禧는 典校署別提로 이미 考滿이 되었으니, 청컨대 유서는 좋은 벼슬을 제수하고, 백수희는 祿과 관직을 주소서.”하니, 전지하기를, “가하

다.”하고, 인하여 한계희 등에게 호피(虎皮) 각각 한 장씩을 명하여 내려 주게 하였다^⑦.

『醫方類聚』는 성종 8년(1477) 완성되는데, 인쇄

하는 데만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그 방대한 양으로 인해 30질만을 인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醫方類聚』의 편찬과 간행 과정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Process of Compilation, Correction and Publication of "Uibangyuchi"

단계	기간	군왕	내용	주요 인물	결과물 ^⑧	비고
1단계	1443년 ~1445년	세종	① 방서 수집과 분류 ② 수집 의서 내용의 재편집 ③ 결과에 대한 감수	김예봉, 유성원, 민보화 김문, 신석조, 이예, 김수온(文官) 전순의, 최윤, 김유지(醫官) 안평 대군, 이사철, 이사순, 노중례	草稿本 365권 (世宗本)	未刊
2단계 ^⑨	1459년 ~1464년	세조	① 1차 교정기 ② 세조의 검토와 교정자 교체 ③ 2차 교정기, 교정완료	양성지 (총괄) 손소, 유요, 한치량, 안극상 등(정계) 한계미, 최영린 등 (포상)	校正本 (世祖本)	未刊
3단계	1477	성종	266권 인출	264책 『醫方類聚』 3권 한계희, 임원준, 권찬	初刊本 266권 (成宗本)	刊行

여기에서 전순의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醫方類聚』 편찬 과정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맡았던 의관이자, 『鍼灸擇日編集』의 편저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醫方類聚』 편찬 1단계, 즉 草稿本 편찬에 참여하였다. 『醫方類聚』 초고본 편집단계에 관여한 여러 인물 중에서 최윤, 김유지, 전순의만이 의관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실질적인 실무를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전순의는 『醫方類聚』 편찬과 관련한 서적들을 열람하는 한편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을 것이라는 사실도 추측해 볼 수 있다.

2) 『醫方類聚』 교정 과정에서 침구 전문 지식의 산식

『醫方類聚』 引用諸書에 기재된 서적은 153종이지만, 실제 인용된 서적은 모두 142권이다. 이 중 대부분은 의서이며, 약간의 도교수련서와 불교 관련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침구류에 인용된 인용

서는 모두 29권으로, 『千金方』이 35회, 『神巧萬全方』이 15회, 『得效方』이 18회, 『肘后方』이 14회로 인용되었으며, 이들의 인용횟수를 합하면 82회로 전체 158회의 과반수를 차지한다^⑩.

주목해야 할 것은 인용서적에 침구전문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용서 가운데에는 침구전문서가 없다는 점이다. 침구법에 가장 많이 사용된 위의 네 서적도 침구전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醫方類聚』에 인용된 142권 가운데 침구전문서는 전혀 없다. 조선 초기를 기준으로 당대 침구전문서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서적을 꼽는다면 『銅人腧穴鍼灸圖經』과 『鍼灸資生經』을 들 수 있다. 이들 서적이 『鄉藥集成方』, 『東醫寶鑑』에 매우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醫方類聚』에서는 「引用諸書」에서 이들 서적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본문에 들어서서는 이들 내용을 ‘分門類聚’해 놓지 않았다. 대량의 의방서를 정리하면서 침구학의 학술 전통에서 가장 권위가 높

⑦ 『成宗實錄』 8년(1477) 5월 20일 “西平君韓繼禧、左參贊任元濬、行護軍權擴印進『醫書類聚』三十帙。啓曰：此書印出至三年功訖。其監印官柳渭久滯醫官，自受祿以典校署別提。已考滿，請授渭顯官，受祿祿職。傳曰：‘可。’仍命賜繼禧等虎皮各一張。”¹⁷⁾

은 서적들을 빼 놓았다는 것은 『醫方類聚』의 '醫方'이 침구방서를 제외한 藥方書를 위주로 하였음을 말해준다.

『醫方類聚』에 사용된 침구 관련 내용들은 藥方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방서 안에 존재하는 침구법들을 함께 채록한 것이며 침구법에 관한 별도의 편집의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治法門의 구성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醫方類聚』는 전체 91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문은 醫論, 方藥, 食治, 禁忌, 鍼灸, 導引 등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凡例에는 醫論-方藥-食治-禁忌-導引만 언급되어 있을 뿐 鍼灸에 관한 언급은 빠져 있다^⑧.

이러한 사실 사이에는 서로 모순된 편이 존재한다. 「인용제서」와 실제 인용 서적의 차이, 범례의 "醫論-方藥-食治-禁忌-導引"의 언급과 실제 인용시 鍼灸의 존재가 그것이다. 이런 모순은 초간본 이후 교정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초간본에는 침구전문서의 침구 전문 지식들이 교정 과정에서 빠졌다고 볼 수 있다. 『醫方類聚』는 草稿本 때에는 365권이었으나, 30여년간의 교정과정에서 약 100여권이 산삭되어 刊行本에 이르렀을 때에는 266권 뿐이었다. 따라서 이 100여권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침구전문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 『鍼灸擇日編集』의 간행과 鍼灸擇日의 의의

1) 『鍼灸擇日編集』의 간행

전순의는 『醫方類聚』 초고본 완성 이후, 교정이 진행 중인 와중에서 金義孫과 함께 『鍼灸擇日編集』을 편찬하게 된다. 『醫方類聚』 초고본 완성이 세종27년(1445), 『鍼灸擇日編集』의 간행이 세종29년(1447)임을 감안한다면, 전순의는 『醫方類聚』 초고본 완성 이후 곧바로 『鍼灸擇日編集』 편찬에 힘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鍼灸擇日編集』은 조선 초기에 편찬된 침구서로서 조선 最古의 침구전문서이다. 이 책은 침구택일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鍼灸擇日編集』은 다양한 서적에 나와 있는 침구택일법을 비교하여 정리해 놓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동의보감』, 『침구경험방』 후속 서적들에 담겨 있는 침구택일법의 모태가 되었다¹⁰⁾.

『鍼灸擇日編集』은 이처럼 의사학적으로 의미있는 저작이기는 하지만, 학술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매우 독특한 내용과 형태를 간직한 서적이다. 그렇다면 왜 조선에서는 최초의 침구전문서로서 실제 穴位나 選穴, 手法이나 鍼法이 아닌 鍼灸擇日을 정리한 『鍼灸擇日編集』을 간행하였을까? 그 이유는 당시 침구택일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의학에서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천지의 기운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기운과 천지의 기운은 항상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인식되어 왔다. 한의학에서는 經絡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경락은 인체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體外와 體內를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상들을 바탕으로 운기학과 침구학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鍼灸擇日法이다¹²⁾. 침구택일의 목적은 인간과 천지가 조화를 이루기 좋은 날인 吉日과, 반대로 부조화가 심해진 때를 의미하는 忌日을 구분하는 것이다¹⁰⁾. 김예봉(金禮蒙)이 쓴 『鍼灸擇日編集』의 서문에는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침뜸의 방법이 여러 방서에서 섞여 나왔으나 (시술할) 날을 가릴 때에 간혹 길흉에 미혹되니, 침구를 업으로 삼은 자들이 일찍이 이것을 병통으로 삼아왔다. 사람은 천지의 沖氣를 받고 음양의 기를 품부받았

⑧ 『醫方類聚』 凡例 “一. 諸門內論及藥畢書後, 繼書食治禁忌導引 ...”²⁰⁾

으니 甲은 膽이요 乙은 肝이어서 臟腑가 十干에서 저절로 나뉘어지며, 봄은 井이요 여름은 榮이어서 경락이 모두 四時에 통하니, 그렇다면 時·日·支·干는 사람의 몸과 더불어 운행하고 吉凶悔吝은 人事에 따라 응한다. 『鍼經』에서 '때를 얻고 침을 놓으면 반드시 그 병을 제거하고, 때를 잃고 침을 찌르면 그 병을 낫게하기 힘들다'고 말하였으니 곧 침뜸의 방법은 더욱 택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⁹⁾

서문의 의미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은 천지와 기운이 연결되어 있고 時·日·支·干에 따라 인체의 기운이 변한다고 보았다. 둘째, 침뜸은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택일이 정확하지 않으면 병이 낫기 어렵다고 보았다. 셋째, 그렇지만 침구택일이 당시까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것이 문제가 되어 왔다. 넷째, 책의 편집 의도는 침뜸을 시술할 날을 정확하게 가리기 위한 것이다.

김예봉은 서문에서 『鍼灸擇日編集』이 침구택일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서적임을 설명하고 있다.¹⁰⁾ 조선이 건국되어 경국대전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듯이, 의학에서도 치료의 기준을 세우고 그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치료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2) 침구 시술의 첫 단계로서의 鍼灸擇日

조선 시대 왕실 기사들을 분석해 보면 왕실의 침구치료에는 항상 침구택일이 선행되었으며, 그 吉凶을 논함에 있어서도 의사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왕실에서는 왕이 의관들에게 질병 치료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 受鍼을 받고자 하니 擇日을 해오라는 내용의 교지를 내렸다. 『承政院日記』 현종 원년(1660) 기사를 보면, 受鍼을 위해 擇日을 하라는 교지를 받은 뒤, 鍼醫들이 상의하여 擇日 결과에 따라 受鍼 시작일을 아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¹¹⁾. 숙종 44년(1718)에도 숙종 자신이 流注證 치료를 위해 鍼灸擇日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¹²⁾. 이처럼 침구를 처음 시술할 때에 가장 처음 수행하는 것이 바로 鍼灸擇日이었다. 선조 31년(1598)에는 뜰법의 하나인 牛角灸를 시술하기 위해 擇日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를 수행할 鍼醫인 朴春茂와 許任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牛角灸 시술에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³⁾. 이들 기사들을 통해 당시 왕실에서는 침구택일이 침구 시술의 한 부분으로서 침구치료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여겨졌으며, 의사들만의 고유한 전문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⑨ 『鍼灸擇日編集』序文 “然鍼灸之法 雜出於諸方 擇日之際 或迷於吉凶 業斯術者 詈病焉 內醫院 醫官護軍臣全循義 司直臣金義孫 攻乎此者也。……人受天地之中 粿陰陽之氣 甲膽乙肝 臟腑自分於十干 春井夏榮 經絡皆通於四時 則時日支干與人身而運焉 吉凶悔吝隨人事而應焉 故鍼經云 得時鍼之必除其病 失時刺之難愈其病 則鍼灸之道 尤莫重於擇日也。”²¹⁾

⑩ 조선시대 침구택일법의 발전 상상에서 『鍼灸擇日編集』은 '정리와 전문화', 『東醫寶鑑』은 '이치적 정립', 『鍼灸經驗方』은 '실용적 간이화'으로 규정된다.¹⁰⁾

⑪ 『承政院日記』 원본164책(탈초본9), 현종 원년(1660) 9월 15일 (정묘) “약방에서 다시 아뢰기를, ‘受鍼에 吉日을 擇日하여 들이라는 교지를 업드려 받았고 金尙誠 尹後益 金重白 및 여러 鍼醫들과 상의한 결과 이번 달 18일이 가장 좋고 25일이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鍼穴은 受鍼할 때에 정하고 처음 침 놓는 날을 18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아립니다.’라고 하였다.”(再啓曰 伏承受鍼吉日擇日以入之教 卽與金尙誠·尹後益·金重白及諸鍼醫相議 則以本月十八日爲最吉 二十五日爲次吉云 鍼穴則當臨時稟定 而始鍼之日 則以十八日爲定乎? 敢稟)²²⁾

⑫ 『承政院日記』 원본507책(탈초본27), 숙종 44년(1718) 3월 3일 (임자) “약방에서 다시 아뢰기를, ‘어제 입진하였을 때, 유주증에 수침하기 위해 택일을 하라고 하교하시었습니다. 신동이 물려나 여러 鍼醫들과 방서를 살펴 정밀히 택일한 결과 이번 달 11일에 비로서 受鍼하는 것이 吉합니다. 이 일정대로 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히 아립니다.’라고 하였다.”(房再啓曰 昨日入診時 流注受鍼擇日事 下教矣 臣等退出後 與諸鍼醫 按方精擇 則今月十一日 始爲受鍼爲吉云 以此日定行乎? 敢稟)²²⁾

⑬ 『宣祖實錄』 104권, 선조 31년(1598) 9월 22일(갑진) “약방이 다시 아뢰기를, …… ‘우각구는 날을 가려 들어보내려 하나 鍼醫 중에 朴春茂, 許任이 모두 무단히 출타중에 있습니다. 중대한 擇日이므로 반드시 널리 의논하여야 하니 다른 침의들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려서 議啓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박춘무, 허임은 우선 추고하고 현재 가 있는 곳의 관원에게 재촉하여 올

따라서 침구시술에서 진단, 변증, 선혈, 수기법, 자침법, 구법 등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鍼灸擇日編集』이 가장 처음 만들어진 것은, 침구택일이 전체 침구 시술 과정의 가장 첫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鍼灸擇日編集』을 시작으로, 『鍼灸擇日』 이외에 침구전문지식을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계획되고 수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鍼灸擇日編集』이 『醫方類聚』와 동일한 편집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醫方類聚』에서 산삭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통해 이런 추측을 뒷받침해보고자 한다.

3. 『鍼灸擇日編集』의 간행과 『醫方類聚』 과의 관계

1) 저자와 간행 시기의 일치

『鍼灸擇日編集』은 『醫方類聚』 초고본(1445) 완성 이후에 저술되기 시작하여 2년 후인 1447년 간행되었다. 시기적으로 『醫方類聚』 간행과 매우 가까이 연접되어 있다. 이는 초고본 완성 이후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책을 저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과거에는 간행 자체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鍼灸擇日編集』 편찬은 『醫方類聚』 초고본 완성 이후에 바로 착수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두 책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전순의라는 인물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순의는 『醫方類聚』 초고본 편찬시 실무를 맡았던 의관이었다. 따라서 그가 초고본 완성 이후 곧 바로 김의손과 『鍼灸擇日編集』 편찬에 골몰하였음을 알 수 있다.^{2,11)}

2) 편집 형태의 유사성

『醫方類聚』와 『鍼灸擇日編集』은 서술 방식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鍼灸擇日編集』은 서적 간에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경우 기준이 되는 서적의 내용 중심으로 다른 인용서적과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것만을 주석으로 처리하였다(Fig. 1). 이런 서술 방식은 『醫方類聚』 역시 마찬가지이다. 『醫方類聚』 역시 기준이 되는 서적의 내용을 기술한 뒤에 다른 서적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주석으로 처리하고 있다(Fig. 2).

辛日脾	廣記	膝 銅人同	元龜股
壬日腎	銅人腎脰	元龜脰	廣記
癸日足	廣記同	元龜手足	銅人同
子時蹠	金方逐時人神志	銅人	明堂 聖惠
午時踝	廣記 元龜	龍木	廣記同
未時頭	聖惠	明堂	聖惠同
申時耳	銅人腰	廣記	元龜
酉時面	外臺項	聖惠面	銅人同
戌時項口	外臺面	銅人頭	龍木同
亥時肩	外臺乳	明堂	聖惠項口
子時胸脇	元龜	廣記同	元龜
午時胸脇	聖惠胸	明堂	廣記
未時木同	元龜	銅人	銅人同
未時腹	諸經同		

Fig. 1. Example of Descriptive Methods of "Chimgutae kilpyonjip".

治歷節諸風百節酸痛不可忍方	治風寒濕三服
松脂三十斤鍊五十遍水煮十遍	松脂三十斤鍊五十遍水煮十遍
<small>生易陽方無酒</small>	<small>生易陽方無酒</small>
不能五十遍二十遍亦可	不能五十遍二十遍亦可
鍊酥三升溫和松脂三升熟擦極慢	鍊酥三升溫和松脂三升熟擦極慢
調筋後作易調筋後作易	調筋後作易調筋後作易
刷身勿令空腹酒服方寸匕日	刷身勿令空腹酒服方寸匕日
子百日已後瘥○聖惠方	子百日已後瘥○聖惠方
松脂三十斤鍊五十遍水煮十遍	松脂三十斤鍊五十遍水煮十遍
<small>生易陽方無酒</small>	<small>生易陽方無酒</small>
不能五十遍二十遍亦可	不能五十遍二十遍亦可
鍊牛酥過者并鍊牛酥過者并	鍊牛酥過者并鍊牛酥過者并
右件	右件
柏子入	柏子入
天雄	天雄
草薢	草薢
菖蒲各五	菖蒲各五
熟一敵時下後諸	熟一敵時下後諸
柏子入	柏子入
天雄	天雄
菖蒲各五	菖蒲各五
熟一敵時下後諸	熟一敵時下後諸
亢六入參	亢六入參
茵芋各四	茵芋各四
防風十石	防風十石
石礦石	石礦石

Fig. 2. Example of Descriptive Methods of "Uibangyuchi".

단순한 교감 차원에서 서적 간에 차이를 주석으로 달아 주는 것은 혼한 일이다. 주석이라는 형식이 한정된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醫方類聚』와 『鍼灸擇日編集』에

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藥房再啓曰……牛角灸，欲爲擇日入之。而鍼醫中朴春茂、許任，皆無緣出外。不小擇日，必須廣議。待他鍼醫齊會，議啓爲當。朴春茂、許任爲先推考，令所在官，催促起送何如?)¹⁹⁾

보이는 것과 같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서적에서 추출한 대량의 정보를 비교 대조하는 작업은 역대 의학서 가운데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醫方類聚』와 『鍼灸擇日編集』과 같이 양적으로 많은 서적들을 동시에 비교해 놓은 경우는 전무후무하다. 따라서 『鍼灸擇日編集』의 편집 형태는 『醫方類聚』의 그것을 본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鍼灸擇日編集』과 『醫方類聚』의 인용 문헌의 문제

『鍼灸擇日編集』에 인용된 서적은 『孫眞人備急千金方』, 『黃帝明堂灸經』, 『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太平聖惠方』, 『竇漢卿編集鍼經指南』, 『新刊銅人鍼灸經』, 『鍼灸廣愛書括』, 『事林廣記』, 『齊人千金月令』, 『元龜集』, 『龍木總論』, 『資生經』, 『素問靈樞經』, 『巢氏病源論』, 『易簡方』, 『龍樹菩薩眼論』 등 모두 16개이다.

『鍼灸擇日編集』에 사용된 16종 가운데 『元龜集』을 제외한 15종은 모두 『醫方類聚』「引用諸書」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醫方類聚』에는 『鍼灸擇日編集』에 인용된 침구전문서들의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인용제서」에는 있지만 실제 내용은 없는 셈이다. 이는 『醫方類聚』 서두에 밝히고 있는 「引用諸書」와 실제 인용 서적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¹³⁾.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鍼灸擇日編集』에 사용된 16종 가운데 『元龜集』을 제외한 15종이 『醫方類聚』「引用諸書」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素問靈樞經』, 『明堂灸經』, 『銅人經』, 『資生經』, 『鍼經指南』, 『鍼灸廣愛書括』, 『眼科龍木總論』은 「인용제서」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 현존 『醫方類聚』 내용에는 인용글이 없다¹⁴⁾. 이들 서적의 공통점은 침구전문의방서라는 점이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醫方類聚』에는 침구전문서에서 인용한 내용이 전혀 없다¹⁵⁾.

「인용제서」의 서적이 『醫方類聚』 초고본에서 인용했던 서적들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초 『醫方類聚』 초고본에는 침구전문서의 침구학 내용이 편입되어 있었으나 교정 과정에서 이들이 삭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나는 침구학 내용이 『醫方類聚』 편집 의도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초고본에서 침구학이 차지하는 내용이 많고 전문적이어서 교정 과정에서 이를 따로 독립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따로 침구 지식에 대한 분문유취계획을 수립하였을 가능성이다.

전자의 가능성 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鍼灸와 藥餌는 의학을 이루는 커다란 두 축이다. 따라서 의학 지식을 정리하는 거대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이 많다는 이유로 침구 지식을 배제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醫方類聚』 편집 의도가 藥餌만을 모으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醫方類聚』의 체계 속에 鍼灸가 여전히 들어 있다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鍼灸擇日編集』은 『醫方類聚』처럼 침구 전문 지식을 '分門類聚'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¹⁴⁾ 이 밖에도 『鍼灸擇日編集』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인용제서」에는 「靈樞」, 「鍼經」, 「子午流注」, 「玉龍譜」 「十四經發揮」 등의 침구전문서들이 보인다. 그러나 현존 『醫方類聚』에는 침구전문서에서 인용된 내용이 없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cited books for "Chimgutaekilpyonjp" and "Uibangyuchi"

『鍼灸擇日編集』에서의 서명	『醫方類聚』 「인용제서」에서의 서명	현존 『醫方類聚』에 인용 되었는지 여부	비고
『孫真人備急千金方』	『千金方』		
『太平聖惠方』	『聖惠方』		
『事林廣記』	『事林廣記』		
『齊人千金月令』	『千金月令』	有	
『元龜集』	없음		비침구전문서
『巢氏病源論』	『巢氏病源』		
『易簡方』	『易簡方』		
『龍樹菩薩眼論』	『龍樹菩薩眼論』		
『黃帝明堂灸經』	『明堂灸經』		
『補註銅人脈穴鍼灸圖經』, 『新刊銅人鍼灸經』	『銅人經』		
『竇漢卿編集鍼經指南』	『鍼經指南』		
『鍼灸廣愛書括』	『鍼灸廣愛書括』	無	침구전문서
『龍木總論』	『眼科龍木總論』		
『資生經』	『資生經』		
『素問靈樞經』	『黃帝內經素問』, 『靈樞經』		

4) 『鍼灸擇日編集』과 『醫方類聚』에서 파 생된 전문분과서적들과의 비교

선행연구에서 『醫方類聚』를 통해 분과 전문 서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⁷⁾. 그리고 『瘡疹集』과 『醫方類聚』와의 구체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었다¹⁾. 『장진집』은 세종대 편찬한 『瘡疹方』을 산정하여 세조 3년(1457)에 간행된 서적으로 『醫方類聚』 초고본을 모태로 하여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鍼灸擇日編集』 역시 전문적인 침구지식이 전문화되어 하나의 서적으로 정리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鍼灸擇日編集』은 『醫方類聚』의 영향을 받은 일군의 전문분과 서적들의 편집 모델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鍼灸擇日編集』이 시기적으로 『瘡疹集』에 앞서며, 『醫方類聚』 편찬에 직접 참여한 전준의가 저술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자 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장진집』은 실제 백성들의 시급한 질병 문제를 직접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鍼灸擇日編集』은 시급한 질병 구제 보다는 이론적 근거를 정립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즉 『장진집』은 당시에 시급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醫方類聚』 편찬과 교정 과정에서 전문 지식을 분화해 만들어진 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鍼灸擇日編集』은 이런 시급성이 없었음에도 오히려 『장진집』 이전에 만들어졌다.

또 『장진집』의 내용은 현존 『醫方類聚』에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많이 수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醫方類聚』를 모본으로 하여 『장진집』이 만들어졌지만, 그 의학 지식은 『醫方類聚』 안에 그대로 남겨졌다는 것이다¹⁾. 그러나 『鍼灸擇日編集』의 경우 『醫方類聚』를 모본으로 하고 있지만, 현존 『醫方類聚』에는 이와 상응되는 내용이 없다.

4. 『醫方類聚』의 교정과 鍼灸 지식의 분문유취

이런 일련의 정황들을 통해 필자는 세조가 『鍼灸擇日編集』을 시작으로 침구학 지식들을 '分門類聚'하는 작업을 계획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해 보았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醫方類聚』 교정 과정에서 침구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배제되었다. 방서 가운데 침구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대로 남겨 두어 醫論, 方藥, 食治, 禁忌, 鍼灸, 導引라는 『醫方類聚』 전체의 체계는 유지하였지만, 「인용제서」에 언급되어 있는 침구전문서에 포함된 내용들은 모두 刪削되었다. 醫論, 方藥, 食治, 禁忌, 鍼灸, 導引라는 체계와 「인용제서」의 서명들은 초고본 때 확정한 것들일 것이다. 교정 과정에서 침구 전문 지식들이 삭제 되었지만 초고본 때 확정한 전체 체계와 「인용제서」의 서명들은 수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당시 鍼灸는 藥餌와 함께 의학을 구성하는 큰 줄기였다. 『鍼灸擇日編集』 서문에서 김예봉(金禮蒙)은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의학의 도에 두 가지가 있으니, 藥餌요 鍼灸이다.”(醫之道有二焉), “약은 알지만 침을 알지 못하고, 침은 알지만 뜸을 알지 못한다면 실력있는 의사[上醫]로 여기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으니, 침과 뜸이 중요함이 확실하다.”(古人云 知藥而不知鍼 知鍼而不知灸 不足爲上醫 信乎鍼灸之爲重也)라고 하여 전통의학 체계에서 침구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醫方類聚』라는 대형 의방서을 편찬하면서 鍼灸 전문 지식을 배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 가지 않는다. 게다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존재했던 내용들을 교정 과정에서 삭제하였다는 것은 더욱이 이해하기 힘들다. 의방유취 교정 과정에서 일어난 침구 전문 지식들의 삭제는 당시 편집을 주도했던 세조와 신하들이

침구 전문 지식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거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지식이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많았거나 혹은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이를 독립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醫方類聚』와 『鍼灸擇日編集』은 내용, 편집 시기, 편집 형태, 저자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瘡瘍集』 등 『醫方類聚』를 통해 만들어진 전문의방서와는 달리, 『鍼灸擇日編集』은 그 내용이 현존본 『醫方類聚』에서 모두 삭제되어 있다. 그럼에도 『鍼灸擇日編集』의 인용문헌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醫方類聚』「引用諸書」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두 서적은 매우 유사한 편집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기준이 되는 서적의 내용을 기술하고, 이와 유사한 문헌에 대해서는 같고 다름을 小註로 설명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이 두 서적은 편집 시기가 연접되어 있으며 모두 전순의라는 의관이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III. 결 론

조선 초 침구학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鍼灸擇日編集』의 성격과 『醫方類聚』의 침구 내용 분석이다. 연구자는 그간 여기에 천착하던 중, 『鍼灸擇日編集』의 편집 형태가 『醫方類聚』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또 『醫方類聚』「引用諸書」에는 많은 침구전문서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본문에는 이들 서적들에서 인용된 내용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덧붙여보면 다음과 같다. 『醫方類聚』는 교정 과정에서 전문 침구지식이 산삭되었다. 또 이 산삭된 내용 가운데 침구학일법과 관련된 내용이 『鍼灸擇日編集』에 담겨 있다. 『鍼灸擇日編集』은 『醫方類聚』 초고본 탈고 이후 바로 착수 되었으며, 초고본의 실무를 담당했던 전순의가 저술에 참가하였다. 『鍼灸擇日編集』에서 지식을 정리하는 방식은 『醫方類

『聚』의 그것과 일치하여, 시기적인 면, 저자 구성, 정리 형식에서 『醫方類聚』와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鍼灸擇日編集』에서 정리한 침구택일법은 조선 왕실의 시술 예를 보았을 때, 침구 시술 시 가장 처음 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필자는 『醫方類聚』 교정 과정에서 침구전문서의 전문 침구지식이 산삭된 것은 이들을 별도로 '分門類聚'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그 본보기로 『鍼灸擇日編集』을 서둘러 간행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왕실 기록문헌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醫方類聚』와 같은 거칠의 책도 실록 기사에서는 불과 9회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³⁾, 『醫方類聚』를 통해 분화된 『瘡瘍集』은 그 간행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¹⁾.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鍼灸類聚'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명시적인 사료가 발견되기 전까지 위의 내용은 가설로 남게 되겠지만, 이상의 가설은 조선 초 임상과 다소 거리가 있는 『鍼灸擇日編集』이 편차된 이유, 『鍼灸擇日編集』이 가지는 독특한 편집 체계의 의미, 『醫方類聚』에 침구학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소략하게 담겨져 있는 이유, 『醫方類聚』 교정 과정에서 100권 이상 권수가 줄어든 과정 등 조선 초 한국 의학사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준다.

참고문헌

1. 김성수. 朝鮮前期 痘瘍 流行과 『瘡瘍集』.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0 ; 16(1) : 36-40.
2. 김영목, 윤종빈, 전병훈. 全循義의 생애와 저술활동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 ; 21(1) : 10-7.
3. 신순식, 최환수. 『醫方類聚』(醫方類聚)에 대한 판본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997 ; 3(1) : 1-15.
4. 신순식. 『醫方類聚』의 편찬인물. 의사학회지. 1999 ; 8(2) : 187-206.
5. 안상우, 김남일. 醫方類聚 총론의 체제와 인용방식 분석. 경희대 한의대 논문집. 1999 ; 22(1) : 86.
6. 안상우, 최환수. 『醫方類聚』 치법편의 구성과 특징.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0 ; 6(1) : 1-11.
7.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0 ; 20-33.
8. 안상우. 『醫方類聚』 서지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999 ; 12(2) : 19-28.
9. 오준호. 五臟辨證을 활용한 朝鮮 鍼法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 46.
10. 오준호. 醫書에 나타난 조선 침구택일법의 발전과정. 한국의사학회지. 2009 ; 22(2) : 33-42.
11. 윤종빈, 전병훈, 김영목. 全循義의 의학사상과 저작내용에 관한 소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 ; 21(2) : 353-61.
12. 이재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서울 : 집문당. 1997 : 219-49.
13. 최환수, 신순식. 『醫方類聚』의 인용서에 관한 연구(1).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997 ; 3(1) : 17-40.
14. 胡森. 『醫方類聚』의 文獻價值에 관한 管見.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8 ; 14(2) : 151-4.
15.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조선왕조실록. 『世宗實錄』. Available from :URL:<http://sillok.history.go.kr>
16.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조선왕조실록. 『世祖實錄』. Available from :URL:<http://sillok.history.go.kr>
17.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조선왕조실록. 『成宗實錄』. Available from :URL:<http://sillok.history.go.kr>
18.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조선왕조실록. 『中宗實錄』. Available from :URL:<http://sillok.history.go.kr>
19.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조선왕조실록. 『宣祖』

實錄』. Available from :URL:<http://sillok.history.go.kr>

20. 『醫方類聚』

21. 『鍼灸擇日編集』

22. 국사편찬위원회. 『承政院日記』. Available from :URL:<http://sjw.history.go.kr>